

제37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강사: 이종구

소속: 성공회대학교 교수

주제: 일본의 중류 붕괴와 양극화

일시: 2006년 04월 25일 (12 : 20 - 14 : 00)

*강연내용

1984년에 무라카미 야스스케(村上泰亮)의 저서인 『신중간대중의 시대(新中間大衆の時代)』에서는 1975년에 실시된 SSM(social stratification and social mobility) 조사 자료에 입각하여 “신중간대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본의 총중류화(總中流)를 주장했다. 그는 SSM 조사의 분석을 통해, 약 50%에 달하는 지위 불일치 군락(cluster)이 일본 사회의 중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계층구조는 다차원화, 다양화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하층 지위 일치 군락(30%)의 생활 상태는 결코 낮지 않으며, 주택과 승용차 보유율은 전국 이상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무라카미는 80% 이상이 중류라고 자신의 지위를 규정하는 일본의 대중이 엘리트에게 추종하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거론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일본의 거품경기가 꺼지고 장기 불황이 지속되자, 사회적으로 비관론이 확산되는 것과 함께 학계에서도 사회 양극화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었다. 특히, 2000년에 발간된 사토 도시키(佐藤俊樹)의 『불평등사회 일본 - 총중류(總中流)여 안녕 -』(不平等社会日本 - さよなら総中流 -,)에서는 일본이 계급사회가 되고 있다는 시각이 제시되어 커다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방법론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토의 지적은 교육의 황폐화에 대한 논의와 결합되어 다양한 논쟁으로 발전했다.

일본이 시장경제 체제를 갖춘 평등한 사회라는 통념을 부정하는 지표는 1970년대 후반 이후 각종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SSM조사 자료를 이용한 학력·직업위신·소득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여 보면, 1955년에서 1965년에 걸쳐 지위 불일치화가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고도성장이 끝난 1975년에 와서는 학력과 직업위신의 조합을 제외하고는 상관관계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한다. 1985년에는 모든 조합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어 지위가 다시 일치화되는 조짐이 보인다. 그러나 1995년의 자료를 보면 학력과 소득의 상관관계가 약간 저하하고 특히 직업과 소득의 상관관계가 낮아지고 있다. 이는 거품경기가 붕괴한 다음에 임금 삭감과 대규모 노동력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었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이동의 추세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업의 세습률(아버지의 직업이 아들에 이어지는 비율)과 동직률(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직업을 가지는 비율)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층 블루칼라의 경우에는 1955년에서 1975년까지는 세습률과 동직률이 일관적으로 감소했으나, 1985년에 두 가지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반전되었으며 나머지 직업 범주에서는 주목할만한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즉, 경제성장 시대에는 하층 블루칼라가 다른 계층으

로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고도성장이 끝나면서 상승이동 기회가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층 화이트칼라의 세습률이 1985년 자료에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흥미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후반기에 일본의 토지와 주식 가격을 폭등시켰던 거품경기는 일단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진정되었으나 엄청난 사회적 후유증을 남겼다. 지니계수를 통해 본 일본의 소득 분배 구조는 급속하게 악화되었으며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불평등도가 높은 사회가 되었다. 또한, 단기간 진행된 이러한 현상으로 총중류의 붕괴라는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게 되었다.

거품경기는 자산격차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기 집이 있는 집단과 자기 집이 없는 집단의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즉,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의 규모가 개인의 생활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전후 일본이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 사회적 지위가 상승될 수 있는 「기회의 공정성」이 보장된 「개방된 사회」로 변모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심각한 의의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개인이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폐쇄감이 생긴 것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개인이 전문직·관리직의 상층 화이트칼라가 될 수 있는 기회의 개방도는 전전부터 현재까지 통계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原純補·盛山和夫, 1999: 108).

장기고용체제 내부에서 생활이 안정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던 화이트칼라에게 고용 불안의 여파가 미치기 시작한 것, 자산격차의 확대로 유산 상속의 여부가 개인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 등이 사회적 상승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식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논의의 가장 중요한 논점은 사회이동 기회의 폐쇄라고 할 수 있다. 가리야 다케히코(荻谷剛彦)는 계층이동의 개방성이 저하되면 결국 하층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이는 학생의 학습의욕 저하로 귀결되는 ‘유인 격차’(incentive divide)라는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하였다 (荻谷 : 218-224). 또한 야마다 마사히로(山田昌弘)는 1997년 연말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기업에서 정리 해고된 중고령자가 늘어나고, 취업난에 직면하여 임시직으로 전전하는 청년이 증가하므로, ‘희망 격차’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기업의 장기고용 관행은 무너지고 있지만 개인을 보호하는 새로운 ‘중간집단’이 등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범죄, 이혼, 자살, 사회적 불안과 도피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일본 사회에서 양극화는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법에 있어서 규제완화와 경쟁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시장원리 강화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회적 공정성의 개념을 모색하고 합의하여 제도화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둘러싼 정책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노동시장, 교육, 복지 시스템의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일치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서는 대안이 막연한 것이 사실이다.